# 우주를 움직이는 사람



사진 출처 \_ https://blog.naver.com/ilhaeng49/60186821688

#### 6면에 이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음란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그 음부 를 쇠갈고리에 껴가지고 광화문 네거리에다가 세워 놓는다 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건 반드시 실천합니다. 사람 시켜가지고 전부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역사를 거스르 는 자는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하 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져? 앞으로 죄악 세상이 이루어져? 하 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마귀새끼들을 한 마리라도 용 납을 안 합니다.

####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 다 음에는 그때에는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태풍도 못 불어오게 하고, 공산주의를 뒤집어엎고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뭘 못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87년도인가 이제 전주에서 국조숭봉총화국민회 지 부 결성대회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방송에 서 나오니까 이제그대로 "우리들, 가도 됩니까?" 했을 때, 내 가 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이 꽉 차고 비가 내렸 던 것이 이 사람이 전주에 도착할 때는 벌써 구름 한 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마음 대로 하는 걸 눈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제그대 로 그것을 다 보고도 못 깨닫는 인생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 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주에서 예배 보면 전주에 비가 안 오고, 이제그대로 전주에서 예배 볼 때는 대전에 비가 막 팍팍 쏟아 지다가 이 사람이 전주에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그대로 대전 을 향해서 출발하면 전주가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 입니다. 아마 특전대 따라다닌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이 사 람이 가는 곳마다 비가 안 옵니다. 오던 비도 멈춥니다. 논산 헌단예배 때도 비가 그렇게 쏟아지다가 이 사람이 도착하니 까 비가 안 왔습니다. 이제 합덕제단 헌단예배 때에도 비가 오다가 이 사람이 도착하니까 비가 안 왔습니다.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마음대로 할 정도면 바로 이 사람이 우 주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제 대한민국만 움직이는 사람이 야? 우주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런 걸 다 보고도 이런 사실 을 다 보고도 못 깨닫는 인생은 구리구리 멍텅구리입니다. 그 런고로 이제그대로 뭐든지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그대 로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2025년 3월 19일 본부제단 예배 말씀으로 인터넷 ☞ https:// www.victor.or.kr/sub401/250319-920122/ 에서 재시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총애를 받은 제자는 베드로 가 아니라 돈 전대를 맡은 가롯 유다임을 밝힌 〈구세주 설교 동영상>은 아래 인터넷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s://www. victor.or.kr/sub401/250322-920125/

## 잘못 설정된 삼위일체론으로 인하여 성경은 풀리지 않게 되어 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으로서 대표되는 단어 하나를 선정한다면 그 것은 당연히 "영생"이 될 수 밖에 없다. 요한복음(5장39절)에서 "너희가 성경 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 이라"고 하여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을 "영생"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 나님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지만 나중에다시 계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나중에 계시게 되는 하나님 과 태초의 하나님은 같지만 그 위상은 다르게 되어 있다. 아래 인용되는 성경 을 보겠다.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 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肉)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 셨느니라(고전15:45~47).

하나님의 특징은 삼위일체(三位一 體)이며 하나님은 신이시니 삼신일체 (三神一體)라는 의미이다. 이사야서 (41:4)는 "태초에도 나요 니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고 기록된 것 의 의미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나중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 이 계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태초 와 나중의 중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 한 내용은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그렇게 중간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 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15:45~ 47)에 기록된 "첫 사람 아담"으로 추정 된다. 첫 사람 아담은 육(肉)을 입은 사 람으로 전락(轉落)된 아담 하나님을 의 미한다고 여겨지며 마지막 아담은 "살 려주는 영이며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는 내용에서 이사야서(41:4)에 거명된

"니중에 있을 자"가 곧 살려주는 영 곧 구세주로 오시는 '마지막 아담' 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바로 아래 인용되는 성경 내용과 일치될 수 있는 것이다.

-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 존자의 아들들이라(시82:6).
-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 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3:5).

본 단원에서 하나님의 특성인 삼위 일체는 기존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아담과 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삼신을 삼위일체로 인정한 위에 성립되는 내 용인 것이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성립이 될 수 없음을 증명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 영원 전부터 삼 위일체로 스스로 존재해 오신 존재이 시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 수를 하나님의 삼위 중 한 자리에 해당 된다고 하면 태초부터 2023년 전에 예 수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위일체(?) 로 계시다가 2023년 전이 되어서야 비 로소 삼위일체가 완성되었다는 의미 가 되므로 억지 주장이요 잘못된 주장 이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세상에서 부부(夫婦)를 일심동 체(一心同體)라 한다. 그런데 성자(聖 子)는 성부와 부자 관계가 되어 동체 (同體) 즉 일체가 아니며 이미 일촌(一 寸)의 간격이 벌어진 관계가 되므로 이 또한 억지주장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셋째, 성령(聖靈)의 경우 성부도 성 자도 동일하게 성령자체이다. 그러므 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은 결국 성 부와 성자만 존재하고 성령은 중복적 으로 계수가 되는 셈으로서 삼위 자체 가 성립 불가이므로 이 또한 억지 주장 이될수밖에 없다.

그러한 엉터리 개념을 걸어두고 성 경 말씀을 풀려하니 그 해석이 읽는 사 람마다 십인십색(十人十色)이 될 수 밖 에 없어 아래 인용되는 성경의 경고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 달을 수 있게 된다.

-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 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 겠는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 이라야 그 도(道)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호 14:9).
-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 망에 이르느니라(벧후3:16).

방금 인용된 두 곳의 말씀으로 죄인 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공부 하여도 그 참의미를 절대로 이해할 수 가 없다는 내용임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수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 이 그것을 공부하였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였던 이유가 딱 하나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앞으로도 계 속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성경 (마15:14)에 기록된 "소경이 소경을 인 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경고 또한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 고 신도들을 열심히 지옥으로 끌고 가 는 역할을 하면서도 천국으로 인도하 는 거룩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으 로 아침에 눈을 뜰 것이다.\*

정수윤 승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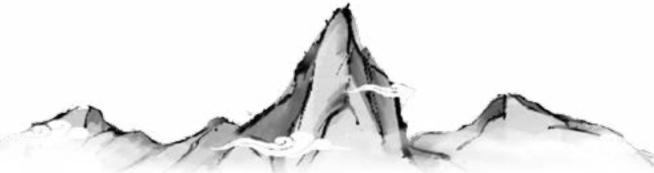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제 72회

### 弓乙圖歌(三) 궁을도가

山魔海鬼(산마해귀) 은장된다 掀天勢魔(흔천마세) 버히려고 數千年前(수천년전) 定(정)히둔칼 天皇利刀仔細(천황이도자세)알고 利刀歌(이도가)를 먼저불러 肉身滅魔(육신멸마) 먼저하고 塵海業障破兮越兮(진해업장파혜월혜) 晨淸跪坐誦眞經(신청궤작송진경)을 不赦晝夜(불사주야) ソスピュ 洞洞燭鑑銘心(동동축축명심)하소 三鳥頻鳴數數聲(삼조빈명삭삭성)에 昏衢長夜(혼구장아) 발어오니 容天劒(용천검) 놉히들고 멸마경을외우면서 勝利大將後軍(승리대장후군)되어 不顧左右前進(불고좌우전진)하자 佛道大昌此時(불도대창차시)에 雙弓之理覺心(쌍궁지리각심)하소

마귀는 산과 바다로 도망가서 숨어버 리느니라. 하늘을 들어 올릴 것 같은 큰 권세를 지닌 미귀를 베어 없애려고 하나 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정해둔 용 천검을 빼 드셨으니 하나님의 예리한 칼 (천황리도天皇利刀)을 자세히 알아 예 리한 칼 노래를 먼저 불러 육신 속의 모 든 마귀를 먼저 멸한 후 티끌같이 덧없 는 인생의 무수한 업장을 깨뜨리며 넘어 가소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꿇어앉아 진

# 공주 계룡산은 피난처가 아니요 입산수도(入山修道) 말고 하산할 때로다



경을 외우며 밤낮없이 잊지 말고 그 뜻을 깊이 헤아려 살펴 마음에 새기도록 하소. 조(鳥)자는 닭 유(酉)를 의미하므로 삼조 (三鳥)는 삼유(三酉)이다. 경술년으로 조 선이 망한 후 신유(辛酉) 계유(癸酉) 을유 (乙酉)의 닭이 세 번 자주자주 우는 가운 데 어둡고 두려웠던 긴긴밤이 마침내 지 나가고 날이 밝아 오니 용천검(容天劍) 을 높이 들고 멸마경을 외우면서 승리 대 장의 후군(後軍)이 되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자.

미륵불의 불사영생(不死永生)의 무극 대도(無極大道)가 크게 창성(昌盛)하는 이때는 쌍궁(雙弓) 즉 궁궁의 이치를 깊 이 마음에 깨달아야 하느니라. 경술년으 로 조선이 망한 후 첫 번째 닭이 우는 신 유년(1921년)으로부터 햇수로 60년이 되 는 신유(辛酉)년(1981년)에 천지 공사가 시작되어 계유(癸酉), 을유(乙酉)의 삼조 (三鳥=三酉삼유) 즉 1981년(신유)부터 계유(1993) 2005년(을유)까지도 정도령

의 진리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어두운 기 간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날이 서서히 밝아오니까 궁궁의 이치를 깨달아서 오 로지 앞만 보고 전진하지는 뜻이 감추어 져 있다.

斥儒尚亞(척유상불)오넌時代(시대) 人日稱弟僧師日稱(인왈칭제승사왈칭) 佛道佛道何佛道(불도불도하불도) 弓弓之間眞仙佛(궁궁지간진선불)을 左右弓間彌勒佛(좌우궁간미륵불)이 龍華三界出世(용화삼계출세)에 三位三聖合力(삼위삼성합력)하니 四海之内登兄弟(사해지내등형제)라 人人合力一心合(인인합력일심합)이면 原子不如海印(원자불여해인)이라 天恩之聽感格(천은지청감격)하니 萬歲三唱(만세삼창)부르리라 七十二才海印金尺(칠십이재해인금척) 无窮造化天呼萬歲(무궁조화천호만세)

유교를 배척하고 궁궁지간(弓弓之間) 즉 백십승(白十勝)인 진선불(眞仙佛=미 륵불)을 숭상하는 중천운의 시대는 사람 들이 말하기를 누구나 다 같은 형제라 할 것이며 스님들은 미륵불을 스승이라 하 리라. 불도(佛道) 불도 하는데 어떤 불도 를 말하는가? 궁궁의 사이에 있는 진선 (眞仙=진짜 신선) 진불(眞佛=미륵불)의 불도를 말함이니라. 좌궁우궁(左弓右弓) 사이의 백십승 미륵불이 온 우주를 용화 세계(극락선경)로 만들고자 세상에 나오 실 때 삼위삼성(三位三聖)이 힘을 합치니 온세상이 다 같은 형제가 되느니라.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화합하면 원자(原子)도 해인(海印)만 같 지 못하니라. 하늘의 은총 은혜를 듣고 감격하여 '하나님 만세!'를 삼창(三唱)하 리라. 칠십이재(七十二才)의 해인금척(海 印金尺)으로 무궁조화를 부리시니 하나 님 만세를 부르네.

### 鷄論歌(계룡가)

鷄龍石白非公州(계룡석백비공주)요 平沙之間眞公州(평사지간진공주)라 靈鷄之鳥知時鳥(영계지조지시조)요 火龍變化無雙龍(화룡변화무쌍룡)을 鷄石白聖山地(계석백성산지)니 非山非野白沙間(りとせつ)世外と) 弓弓十勝眞人處(궁궁십승진인처)라 公州鷄龍不避處(공주계룡불피처)니 此時何時(차사하사)야요 山不近(산불근)에 轉白死(전백사)니 入山修道下山時(인산수도하산사)라

계룡석백(鷄龍石白)은 충청도 공주 계 룡산을 말함이 아니요 부평 소사 사이의 진짜 공주(진공주眞公州=계룡 정도령)

를 말함이니라. 영적인 닭은 때를 아는 새요. 화룡(火龍=진사성인)은 변화무쌍 한 용이니라. 계룡석백은 성인 정도령이 계신 곳이니 비산비야(非山非野) 즉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백사(白沙)인 소사간 (素砂間)이 궁궁십승진인(弓弓十勝眞人) 이 계신 곳이라. 충청도에 있는 공주 계 룡산은 피란처가 아니니라. 이때는 어느 때인가? 산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 하 는 때라. 입산(入山=白의 파자)하면 죽으 리니 입산수도(入山修道)하는 사람들아! 지금은 하산(下山)할 때이니라.\*

> 박명하/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